

#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4.03 (통권242호)

## 경제 이슈

- G20 정상회의 주요 내용
- 국내 외환보유액 증가

## 경영 노트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케팅 전략

## 사회 트렌드

- 피겨맘
- 美, 텐트족 급증

## 차이나 리포트

- 중국경제 저점 지났나?

## 저널 브리프

- PI(President identity)의 핵심실행수단으로 등장한 강연활동

## 洗心錄

-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 G20 정상회의 주요 내용

- G20 정상회의(2일)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원칙을 재확인
  - 성장과 고용회복 : 2010년까지 5조 달러 지출 합의, 1,900만 개 일자리 창출, IMF 재원의 7,500억 달러로 확충, 다자개발은행 대출 1,000억 달러 추가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 유도
  -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 확대,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 규제 등을 통해 금융 부문 강화
  - 보호주의 배격 : DDA 협상 타결에 노력, WTO의 보호무역 배격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2010년까지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세계 무역 투자 증대 유도
- 한편,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국제공조 재확인을 통해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를 둔화시켰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국내 외환보유액 증가

- 한국은행(3일)에 따르면 국내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증가
  - 외환 보유 규모 : 3월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2,063억 4,000만 달러로 전월말 2,015억 달러 4000만 달러보다 48억 달러 증가
  - 외환 보유 구성 : 유가증권 1,824억 달러(89.3%), 예치금 213억 9,000만 달러(10.4%), IMF 포지션 5억 5,000만 달러, SDR 8,000만 달러(0.04%), 금 8,000만 달러로 구성
  - 증가 원인 : 운용수익,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의 강세 디틀 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큰 폭 증가,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만기 도래분 상환 등으로 증가
- 한편,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고 상위 10개국 중 우리나라의 2월중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가장 작았고 3월에는 증가하여 국내 금융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케팅 전략\*

■ 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케팅, 가격할인 등의 다양한 소비진작 전략을 실행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들의 참신한 경영전략은 불황속에서도 기업의 매출증대와 시장점유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미국 50개 소매업체의 불황 극복사례 등을 토대로 불황기 경영전략 5가지를 소개

■ 불황기 5가지 경영전략

구 분	내 용 및 사 례
충성도가 낮은 고객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황기에 기존 고객 유지와 함께 소비감소로 인한 매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고객을 공략하여 매출증대 도모</li> <li>• 스타벅스는 고급 이미지를 찾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 저가의 아침메뉴와 인스턴트 커피를 출시함</li> </ul>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소비자들의 소비는 줄고, 새로운 상품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므로 고객들이 사고자 하는 것과 기업이 팔고자 하는 것의 격차를 줄여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제시</li> <li>• 불황으로 일반 백화점은 판매부진 매장 등을 줄여 비용절감을 도모했지만 한 백화점은 발 빠르게 고객 성향을 파악한 후 상품 다양화 전략으로 판매 부진을 극복</li> </ul>
‘나쁜 비용’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매출감소로 여러 운영비용을 줄이지만, 소비를 촉진시키는 ‘좋은 비용’과 그와 무관한 ‘나쁜 비용’을 구분하여 ‘나쁜 비용’을 줄임</li> <li>• 상당수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스타벅스는 의자, 테이블 등을 줄여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li> </ul>
매장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황기에 고객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개별 매장을 특화</li> <li>• 대학가 중심의 지역이라면 스터디 공간을 꾸미고, 사무실 주변이라면 회의 공간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li> </ul>
새로운 실적 지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 순익 등의 지표 이외에 실적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li> <li>• 새로운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나쁜 비용’은 얼마나 줄였는지 등을 지표화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li> </ul>

■ 불황이라 해서 움츠리는 비용 절감에 치중하기보다 소비자행동 변화에 발 빠른 대응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위기 속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임

\* 이 글은 “불황극복 전략 5가지”(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09.4월호)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피겨맘

- 딸을 세계 명품으로 키운 김연아의 엄마 박미희 씨를 가르켜 ‘피겨맘 (figure mom)’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짐
  - 어설렸던 주부에 불과했던 박씨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피겨스케이팅 기술부터 운동역학까지 두루 꿰는 半전문가로 변신
  - IMF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박세리 선수의 뒤에도 ‘골프대디(golf daddy)’였던 박준철 씨가 있었음
- 미국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극성 엄마들을 부르는 조어들이 있음
  - 공화당 부통령 후보 사라 페일린은 자신을 ‘하키 맘(hockey mom)’이라 칭했는데, 자녀의 아이스하키 연습장과 경기에 따라다니고 다른 엄마와 상당한 친분을 교류하면서 지역공동체 활동에 열성인 엄마를 말함
  - 아이들의 축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사커맘(soccer mom)’, 미니밴으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저속 과외활동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미니밴맘(minivan mom)’, 아이들 안전에 신경 쓴다고 해서 ‘시큐리티맘(security mom)’이라고 함

□ 美, 텐트족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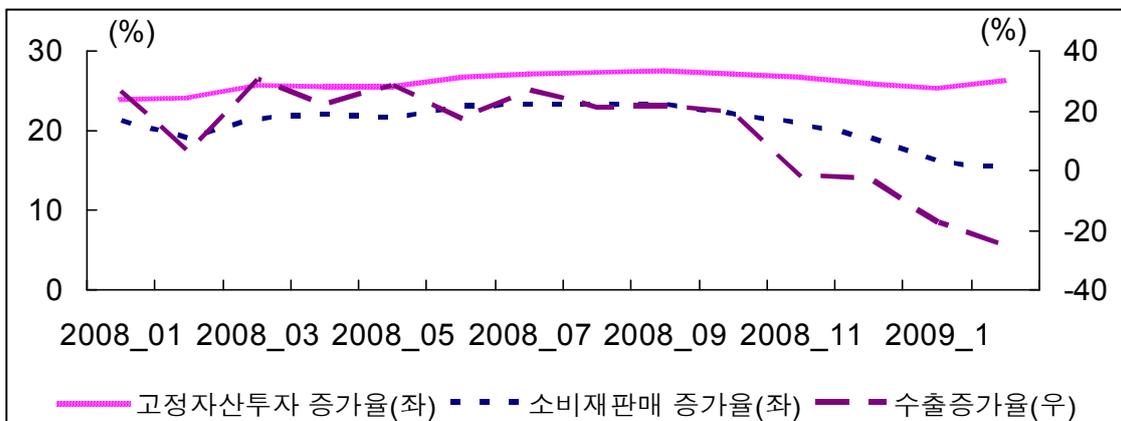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 텐트족이나 모텔족 등 ‘비전통적인’ 형태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 2010년 실시될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지난해 말 미국 주택 소유주 9명 중 1명은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상환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남(올 2월에만 30만 가구가 차압)
- 미국은 주별 연방 예산분배와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기 위해 10년에 1번 씩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하는데, 현재 ‘비전통적’ 주거에 대한 통계는 없다 함
  - 인구조사국은 올해 처음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해 통계를 산출한 계획
  - 또 그 동안 불법 이민자나 노숙자와 같은 ‘산출하기 힘든’ 인구를 집계하는 데 사용됐던 직접 방문 등의 방식을 통해 진행할 계획

□ 중국경제 저점 지났나?

■ (개요) 최근 중국경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중국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 투자 : 고정자산투자는 전반적으로 호전, 정부 주도의 교통인프라 투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기업 설비투자과 부동산투자는 부진
  - 2009년 1~2월 동안 정부와 국유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투자는 200% 이상 증가
- 소비 : 2009년 들어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태임
  - 2009년 1~2월 동안 ‘가전하향’ 정책 실시로 농촌지역의 소비재 판매액은 6,5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도시는 14.4% 증가
- 수출 : 2008년 11월부터 중국의 수출입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시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주요 교역상대국 중 미국(△16.1%)보다도 한국(△28.3%)과 일본(△17.5%)에 대한 수출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최근 중국경제 3대 지표 추이 >



자료 :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 (쟁점) 2009년 1분기 중국의 투자와 생산은 호전 또는 반등을 시현, 소비와 수출입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 긍정적 시그널 :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 관련 지표들은 호전되고 있으며, 자금공급과 증시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고정자산투자) 1~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2%p 상승
    - (산업생산) 전년동기 대비 11.0% 증가, '08년 6월 이후 하락세 마감
    - (PMI 지수) 2월 49% 기록 '08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반등
    - (M2 증가율) '97년 7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종합주가지수) 상해종합주가지수는 '08년 말 대비 29.7% 상승
  - 부정적 시그널 : 수출 악화가 지속되고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과 환율 절상 압력이 가중,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함
    - (수출입) 연속 4개월 동안 마이너스 증가세 시현, '06년 이후 최소 기록
    - (소비) 1~2월 소비증가율 15.2% 기록, 전년동기 대비 5%p 하락
    - (물가) PPI증가율은 3개월 연속, CPI는 7년만에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환율) 6개월 간 유지된 달러 당 6.83 위안의 환율이 급격히 절상됨
    - (재정수입) 1월과 2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1%와 1.2% 감소

< 2009년 1분기 중국경제 주요 지표 >

	낙관적 지표	비관적 지표
1	고정자산투자 : 1~2월 증가율 26.5%, 전년동기 대비 2.2%p 증가	수출입 : '08년 11월부터 수출입은 연속 4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 시현
2	산업생산 : 전년동기 대비 11.0% 증가, '08년 6월 이후 하락세 마감	소비 : 1~2월 증가율 15.2%, 전년동기 대비 5%p 하락
3	PMI 지수 : 2월 49% 기록, '08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반등	물가 : 2월 CPI 증가율 -1.6% 기록, PPI 증가율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4	M2 증가율 : 2월 21.5% 기록, 1997년 7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 기록	환율 : 6개월 동안 지속된 위안화 절하가 최근 절상으로 전환
5	주가지수 : '09년 3월 25일 현재 상해지수는 전년말 대비 29.7% 상승	재정수입 : '09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

자료 : 중국 정부, 국가통계국, 중국세관, 외환관리국, 상해증권거래소.

■ (평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투자가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아 중국경제의 회복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 투자와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중국정부의 교통, 농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비롯된 것이며, 민간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극도로 부진한 상황임
- 2월 들어 일부 소비재 판매 호조로 증가율 둔화폭이 완화되었지만, 하강세가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보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권 부실 잔재가 여전히 있고 단기적으로 소비심리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중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국내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교역관계 상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경기 악화는 한국경제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2008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함으로써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정부의 통제 하에 철저히 국내 기업과 장비, 인력에 우선권을 주는 반면, 외국기업의 접근 기회를 차단
  - 소비진작과 관련하여 가전과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에서도 국산제품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 수출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수출관세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조치는 보호주의 색채가 다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불리

□ PI(President identity)의 핵심실행수단으로 등장한 강연활동\*

- 많은 경영자들이 경영지식을 앞세운 강연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음
  - 최고경영자조찬, 세미나, 커뮤니티와 같은 경영자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과정, 대학생 세미나, 언론지상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하는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음

< 경영자의 강연활동 >

방 안	내 용
최고경영자 조찬회, 세미나,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경영의 실질적 성공 사례와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최고경영자의 조찬회 강연이 증가하고 있음</li> <li>· 다른 CEO나 임원들에게 경영자 스스로의 경영 철학과 성공 노하우를 전파하는 만큼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음</li> </ul>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한 지식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 과정별로 특성에 맞는 CEO들이 자신의 독자적 노하우와 지식을 전파할 수 있음</li> <li>·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경영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임</li> </ul>
대학생 및 일반 학생 대상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통해 경영자의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인 자산으로 축적되므로 기업가 정신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음</li> <li>· 또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의식변화 및 새로운 도전을 추구할 수 있음</li> </ul>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매체를 통한 지식소통은 경영자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li> <li>· 언론인터뷰 및 방송 강연, 칼럼 기고 등의 방법이 있음</li> <li>· 특히 경영자 개인의 대중적 친화력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 경영자의 대외활동은 경영자의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지도도 도모할 수 있음
  - 경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글은 『Chief Executive』 (2009.3)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이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 하더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한발자국씩 더 뛸 수 있어야 하겠다. "김영식의 <10미터만 더 뛰어봐>"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10미터를 더 뛰어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임계점’에서 10미터를 더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점까지 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생과 마라톤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보았다. 저자는 인생은 마라톤에서와는 달리 1등이 딱 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았다. 인생에서는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들 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1등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고 남는 사람이 1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끈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신체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버니 S. 시겔은 자신의 저서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에서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 이제 기도, 좌선, 명상, 여행 등을 통해 마음의 근육도 단련하자.

**“언제나 평범한 사람만이 전성기에 있다.”**

- 서머셋 모옴(1874~1965): 영국의 소설가